

〈백 년 동안 내리는 눈〉

문충성 지음 | 문학과지성사 | 156쪽 | 값 6,000원
 제주도의 시인으로 잘 알려진 문충성 시인의 새 시집이 출간되었다. 문충성의 시가 갖는 가장 큰 특징은 공간적 배경이 되는 '제주도'와 밀접하게 등장하는 '죽음'에 대한 천착이다. 이번 시집에서도 이런 시인의 모습은 변함없다. 이순을 훌쩍 넘긴 시인은 이제 제주도라는 공간에서 떨어져 내려온 삶과 죽음을 "백 년 동안 내리는 눈" 속에서 노래한다. 독자들은 이번 시집을 통해 "늘 깨어 있는" 시인 문충성의 매력을 흠뻑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나비야 창상 가자 1, 2〉

김진명 지음 | 대교비텔스만 | 1권 256쪽, 2권 264쪽 | 각권 값 8,900원

베스트셀러 작가 김진명이 북한 핵 문제와 그 뒤에 숨겨진 강대국들의 음모와 야욕을 그려냈다. 책은 핵 개발에 몰두하며 북한 주민들을 굶겨온 김정일을 120시간 동안 감금한다는 발상에서 시작한다. 제2의 알타회담에 상응하는 밀실 협약이 미국과 중국 간에 이루어졌는지에 관한 진상을 파헤치는 이 소설은 첩보전의 형식을 띠고 있다. 작가 특유의 빠른 전개와 상상력이 독자들을 힘 있게 끌어들이는 작품이다

〈통합적으로 철학하기 2 - 성장〉

유현식 지음 | 휴머니스트 | 330쪽 | 값 1,2000원
 삶의 밑바닥에 있는 것을 밖으로 끌어내는 '철학하기'를 '읽기-말하기-쓰기'라는 구성으로 접근한 독특하고 도전적인 철학 교양서이다. 텍스트해석 연구소 유현식 소장의 주관 아래 연구원들이 공동으로 집필하여 책으로 출간했다. 〈피노키오〉 같은 동화부터 〈데미안〉 〈외판방〉 등의 소설, 〈스텐바이 마〉라는 영화에 이르기까지 '성장'에 관해 총체적으로 사유하는 철학서.

〈사람에게서 구하라〉

구본형 지음 | 을유문화사 | 300쪽 | 값 12,000원
 경영전문가이자 변화전문가인 구본형은 "오늘날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며 리더는 사람에게 시간을 우선 할애해야 한다"고 충고한다. 구본형은 '사람' 중심의 경영을 논하기 위해 중국 춘추전국시대를 차용한다. 중국 역사상 가장 혼란스럽고 불안한 시대였지만 가장 창의적인 인재 실험이 진행된 때라는 것이 저자의 주장이다. 사마천의 〈사기열전〉을 중심으로 풀어낸 중국 고전의 지혜와 함께 경영학적 마인드를 담아낸 저자는 "사람과 사람 사이, 이 사이에 모든 소중한 것들이 다 들어 있다"고 강조한다.

〈교양인을 위한 세계사〉

김문태 지음 | 책과함께 | 451쪽 | 값 14,800원
 서양 중심의 역사 서술에서 탈피하여 전 세계적인 고민과 현실, 대안이 담겨 있는 역사를 다루고 있다. 산업혁명부터 9·11 이후 이라크 전쟁에 이르기까지 현대 사회에 커다란 영향력을 끼친 사건과 핵심 인물을 뽑아 테마별로 다루고 있다. 단순히 세계사에 관한 지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닌, 서양과 서양 이외의 세계를 비교하면서 정치,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현대성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키치, 우리들의 행복한 세계〉

조종걸 지음 | 프론티어스 | 240쪽 | 값 11,000원
 예술 형식에서 삶의 양식을 이해하는 철학으로까지 인식되고 있는 '키치'를 분석한 책. '키치'의 용어적 해설 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 어떤 형태와 속성으로 사용되는지 살펴보면 인상주의, 다다이즘, 기하학주의, 기능주의 등 현대 예술사와 예술인들의 궤적을 좇는다. 〈열정적 고전읽기〉의 저자 조종걸 지음.

〈선비답게 산다는 것〉

안대회 지음 | 푸른역사 | 302쪽 | 값 12,000원
 저자는 인생과 내면, 취미와 열정, 글과 영혼, 공부와 서책 등 옛사람의 정취를 담고 있는 온갖 주제들을 특유의 박학다식으로 풀어내고 있다. 저자의 표현처럼 "뜰에 박히고 화석화된 존재가 아니라, 펄펄 살아 움직이는 존재"인 선비들의 내면을 읽는 재미가 쏠쏠하다.

〈호미〉 박완서 지음 | 열린문 | 264쪽 | 값 9,800원

작가 박완서 씨의 신작 에세이집. 구리시 아천동 마당 있는 집에 이사한 후 소원하던 정원 꾸미기 매력에 빠져 사는 작가는 매일 마당의 나무, 꽃들과 더불어 대화하며 자연이 주는 즐거움을 넉넉한 마음으로 달게 누린다. 일흔이 넘게 지나온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그안에 함께 숨 쉬고 정을 나눴던 주변 사람들의 모습을 추억하며 그림고 서글픈 속내를 드러내보이기도 한다.

〈농부의 밥상〉 안혜령 글 | 김성철 사진 | 소나무 | 256쪽 | 값 11,000원

20년 이상 유기농업으로 먹거리를 만들어온 대표 농부들을 소개했다. 사라진 벼 종자를 살려 오형미를 생산한 전남 벌교 쌀박사 강대인, 전영순 부부, 강원도 화천에서 장애인을 포함한 공동체를 일궈낸 장을 만드는 시골교회 임락경 목사, 무경은 무제 초 자연농업으로 자급자족 삶을 사는 전남 승주 한원식 선생, 농사를 기도로 여기는 수녀님들의 공동체 동광원 등 자연과 사람사이의 관계와 더불어 사는 삶을 지향하는 이 시대 농부 10인의 면면과 깨끗한 밥상을 글과 사진에 담았다.

〈제왕의 리더십〉

김기홍 · 박종기 · 신병주 지음 | 휴머니스트 | 392쪽 | 값 18,000원

그동안 리더십관련 책들은 천편일률적으로 성공한 기업의 최고경영자들을 모델로 삼아 잘난 구석만 파헤쳤다면, 이 책은 역사학자의 눈으로 본 제왕들의 국가경영 사례를 심도 있게 그려냈다. 고대에서 고려와 조선까지 20인의 제왕들에 대한 기술은 전기적 서술에 머물지 않는다. 제왕의 시대를 보는 눈이나 상황을 타개해 나가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파악한다. 제왕이 살았던 역사적 배경과 더불어 제왕들의 다양한 리더십 모델을 벤치마킹할 수 있는 유용한 책이다.

〈고추장, 책으로 세상을 말하다〉

고병권 지음 | 그린비 | 232쪽 | 값 12,000원

〈고추장, 책으로 세상을 말하다〉에서는 고추장이 이웃한 특별한 책들에 대한 단상들과 책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통해서 책으로 회귀한다. 자유, 행복, 도덕, 역사, 기억, 여성, 화해, 선물, 혁명 등의 개념을 그가 읽은 고정을 통해 정리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의 실천적 정의를 내린다. 장애인 이동권 및 생계권 · 농민의 죽음 · 빈곤 · 양극화 · 한미FTA 등 사회의 대표들이 해결해 주지 않는 문제들에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고추장의 독서메모와 고추장의 세상메모는 그의 독서내용을 짐작하기에 충분하다.

〈호모 코레아니쿠스〉

진중권 지음 | 웅진지식하우스 | 304쪽 | 값 13,000원

진중권은 익숙하기 때문에 오히려 폭력으로 존재하는 것들을 낯설게 바라봄으로써 고통받는 한국인의 몸을 날달이 해부하고 있다. 푸코가 분석했듯이 새로운 사회원리가 작동하려면 그에 맞는 몸을 만들어야 한다. 진중권은 여기에서 문제점을 지적했다. 근대화에 따라 급조된 몸이 심한 고통과 몸살을 앓고 있다는 것이다. 저자가 분석한 부작용들을 몸으로 다시 깨닫게 되는 과정이 이 책을 읽는 묘미다.

